

# “내년 광주에서 또 만나요”...전국파크골프대회 폐막

이틀간 600명 참가 본선 마무리  
김정두·정은주씨 남녀 개인 1위  
남·녀 1위 동타 서든데스 재대결  
홀인원 15개 나와...이벤트 풍성

광주 영산강변에서 펼쳐진 광주광역시  
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화려한 옛시간  
의 대장정을 마쳤다. 전국에서 모인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수준 높은 경기력을 뽐  
내면서 출신원 등 풍성한 기록이 쏟아졌  
다.

대회는 23~24일 양일간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에서 본선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앞서 4차례 예선에서 1600명이 참가했으며 600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진행됐다.

대회 전날 비가 내린 뒤 본선 당일 날씨가 개면서 경기장은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고, 참가자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기분 좋게 라운딩을 즐겼다.

600명의 본선 진출자 중 총 36홀 132타 기준, 26타를 줄인 106타를 기록한 김경두(광주)씨가 남부부 우승을 차지했다. 여성부에서는 22타를 줄인 110타를 기록한 정은주(강원)씨가 여성부 우승을 차지했다. 남부 우승 상금은 각각 700만원이다.

남자부 순위는 1위 김정두 씨를 비롯해 2위 길승무(106타·상금 300만원), 3위 김성택(108타·200만원), 4위 임채권(108타·100만원), 5위 김호제(108타·90

2024 광주광역시시장배 전국파크골프 대회 시상식이 24일 광주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에서 열려 남자부 1위~5위 입상자들이 이 승윤 광주주시 파크골프협회 수석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나건호 기자

제13회 광주광역시배 전국파크골프대회

5위  
90만원

제13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4위  
100만원

제13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3위  
200만원

제13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2위  
300만원

제13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1위  
700만원

‘2024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파크골프 대회’ 여자부 1~5위 입상자.

만원), 6위 김승녕(110타·80만원), 7위 유동호(110타·70만원), 8위 김용춘(110타·60만원), 9위 나승만(111타·50만원), 10위 박영목(111타·40만원) 씨다.

여성부 순위는 1위 정은주 씨에 이어 2위 권혜영(110타), 3위 구백은(113타), 4위 김동희(115타), 5위 최선녀(115타), 6위 이회순(116타), 7위 원영이(116타), 8위 김영미(117타), 9위 윤

명례(117타), 10위 이성자(117타) 씨  
다. 상금은 남성부와 동일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1위 모두 동타  
가나오면서 서든데스 방식으로 재대결을  
펼쳤다. D9번홀(파 4)에서 열린 재경기

는 106타로 동타를 기록한 남자부 김정두 씨가 김승무(강원)씨를 누르고 승리했다. 여성부는 정은주씨가 권혜영(광주)씨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녀 1위 재대결을 펼친 선수는 강원도에서 온 부부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출연도 쏟아졌다. 대회의 박진감을 높이기 위해 36을 중 지정홀(파 3) 두 곳  
에서 출연원을 한 참가자에게 10만원의  
상금을 건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  
정홀 출연원만 3명이 나왔고, 기타 홀에  
서도 12개의 출연원이 쏟아졌다.

이벤트도 풍성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 초대가수 공연 등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개회식을 통해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광주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광주는 9개소, 153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향후 골프장 3개소 신설과 54홀 확충을 통해 총 207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장배 전국과크골프대회는 전남일보, 광주시, 광주시체육회 주최, 광주시파크골프협회 주관으로 예산 4회, 본선 이들 동안 선수단과 관계자 등 총 2500여명이 참가해 대규모로 치러졌다.

김성수 기자

## “저렴한 비용에 건강도 챙기고… 장점 뛰어나”



## 남자부 우승 김정두씨

남자부 우승자 김정두(67·사진)씨는 파크골프에 입문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강자다. 운영하던 회사를 그만둔 김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파크골프를 처음 배우게 됐다. 김씨는 30년동안 골프를 쳤던 경험을 되살려 파크골프를 시작하게 됐다.

김씨는 파크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5일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장배 전국 파크골프대

회에서 4등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는 중이다.

김씨는 “파크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기가 치러지니 부담없이 즐기기가 너무 좋다”며 “매번 전국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활동적으로 변해서 전보다 더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건강은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파크골프의 장점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노년층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대회가 자주 열리니까 심심할 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입문 후 첫 우승... 남편과 좋은 기운 얻어 가”



## 여자부 우승 정은주씨

여자부 우승자 정은주(54·사진)씨는 파크골프에 입문한 후 처음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남편과 함께 강원도 춘천에서 광  
주로 원정경기에 출전한 정씨는 3년 전 가족여행으  
로 갔던 캠핑에서 우연히 만난 부부에게 파크골프를  
배우게 됐다고 했다. 정씨는 “9월부터는 전국에서 진  
행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 계속 외박하고 있  
다”며 “경기를 다 하고 나면 11월 말이나 집에 들어갈  
것 같다”고 웃음 지었다. 정씨는 그간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했지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예선전에서 실수가 잦아 거의 마지막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돼지꿈을 꿔는데, 우승하기 위한 좋은 기운이었나보다. 남편까지 2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다.

정씨는 지인들에게도 파크골프에 입문하라고 늘 권유한다. 그는 “파크골프는 전국에서 진행되다 보니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다”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파크골프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쭉,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